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석 위령미사 신청

9월 8일(일) 주일에 추석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2일

날짜 :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1) 비오 구역 :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 글로리아 구역 : 9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과 미사가 있습니다.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오세환 라파엘 형제님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제1독서	이사야서 66, 18-21
화답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2독서	히브리서 12, 5-7. 1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 루카 13, 22-30
봉헌성가	340번 봉헌
성체성가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퇴장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1주일 8월 25일	연중 제22주일 9월 1일	연중 제23주일 9월 8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봉헌자	권명자, 권선용	권선용, 권명자	이홍일, 김연자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라고 묻는 어떤 사람은 시대마다 거듭되어 온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라삐 학교들 안에서 제기되었고, 구원이나 멸망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을 고뇌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라삐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하는 데 일치하였지만, 몇몇 라삐는 선택된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사방에서 온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문의 비유를 드시며, 이민족들에게 나라와 복음이 열려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구원받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며, 메시아 잔치를 예언하는 표상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문이 모든 이에게 좁다고 이르십니다.

마태오 복음의 병행 구절은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마태 7,13-14).

나중에 온 이들, 곧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18일(일) >

봉헌금	\$520.00	
교무금	\$200.00	김윤선(5,6), 이경실(5,6)
예물봉헌	\$190.00	
Total	\$910.00	